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종*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랑가라 대학교는 랑가라 49번가역에서 좌측으로 5분 정도 내려가면 있는 곳으로 본 건물, L 건물, T 건물로 나뉘는데 당 프로그램에서는 본 건물과 T 건물을 주로 사용하였다. 방학인지라 랑가라 학생들은 거의 없었지만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에 좋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 내용은 '서로에 대해 알기'로 시작, '프레젠테이션 기법', '문화란 무엇인가.', '대화의 기술', '캐나다의 토착문화' 등이 진행되었다. 분반은 실력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레벨은 전혀 알 수 없게끔 나누어졌으며, 강사는 랑가라에서 실력별 테스트 이후 분반할 때 알려준다. 과제는 밴쿠버 투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주어 단기어학연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수업 과제는 랑가라 대학에서 지원해주며 한국에서는 펜 정도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중간중간에 밴쿠버 둘러보기, 아쿠아리움, 휘슬러산, MOV로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기도 하였는데 추가비용은 따로 들지 않으며, 음식이나 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여름에는 보통 뽕한 날씨가 대부분이나 비가 올 것을 대비해 우산을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안전에 대해 너무 걱정하여 10:30분이라는 너무 이른 시간에 통금 시간을 걸어놓은 것 같다. 밴쿠버는 9시 이후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즉, 이 말은 밴쿠버의 야경을 즐길 새도 없이 집에 들어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10:30은 너무 오버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내의 규칙은 각 가정마다 다르므로 첫날에 미리 들어놓고 자신과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o)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과 점심은 홈스테이식을 먹고 저녁은 2회 이외에는 모두 밖에서 사서 먹었다. 홈스테이 가족분들도 이해해주니 적극적으로 캐나다의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자.</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교통편이 한국보다는 많이 불편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빠르게 적응한다면 학교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600,000원	
기념품	250,000원	
합계	2,636,966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저녁을 밖에서 사먹을 거라면 식비를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준비해 갔으면 한다. 캐나다의 식비는 엄청 비싸다

Danbo 라멘

Phonm penh 캄보디아

Sally limon 타코

Sushi Mura 스시

Gyu Kaku 일본 바베큐

Yolks 브런치

Captains boil 씨푸드

Pokerrito 회덮밥 한인

Pho tan 쌀국수

현지인 추천이니 꼭 한 번씩은 가보도록 하자.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아무래도 가장 좋았던건 랑가라 친구, 일본인 친구, 대만 친구들을 사귄 수 있던 점이였다. 향후에는 일본 친구들을 보기 위해 일본에 여행을 갈 예정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마지막 발표회 때 찍은 사진</p>	<p>출국 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p>
	
<p>휘슬러산에서</p>	<p>Discover Vancouver 도중에 찍은 사진</p>
	
<p>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p>	<p>아쿠아리움에서 150주년 순회 소파를 만나 우연으로 찍은 사진</p>